

■ 經營과 情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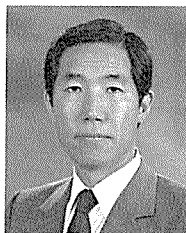
어느 시대에서도 정보가 소홀한 대접을 받았던 적은 없었다. 원시 부락시대에서도 춘추전국시대에서도 적국의 상황이나 동정을 빨리 알아내는 것은 승리를 보장하는 열쇠이었기에, 요소요소에 간첩을 파견하는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정보사회라고 하고 현대에서도 정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정보가 부족해서 곤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사람을 정보홍수에서 보호하자고 개발된 컴퓨터가 정보를 더욱 많이, 더 복잡하게 내어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를 경영에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그것은 정보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정보의 선택,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영정보시스템이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이것을 잘 이용하여 경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은 대기업에 대하여 더 좋은 품질에 더 낮은 코스트, 그러면서도 납기는 더 빨라야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기업에서는 많은 정보라도 조직을 통해서 정보를 분류하



李義一

(주)세중컴퓨터시스템즈 대표이사

여 대처해 나아갈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럴 능력이 부족하므로 더욱 컴퓨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정보전략은 대기업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전략적정보이용시스템(SIS)은 먼저 마케팅 분야에서 전개되어지고 있고, 반면 생산제조부문에선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제조방식(CAD/CAM, CIM)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층에서 정보시스템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영자는 시장에서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즉 품질을 더 좋게 할 것인지, 값을 더 싸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납기를 더 빠르게 해야 할 것인지 등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그냥 '자네들이 컴퓨터 전문가이니까 잘 알아서 해'라고 하도 뒷짐지고 있으면 이는 일종의 직무유기일 터이다.

경영층의 전략제시, 실무자들의 전문지식, 사내의 컴퓨터 마인드가 합해져서 그 기업의 정보시스템이 이룩되면 그 시스템, 그 기업의 성공은 보장된다고 믿는다.

어쨌든 다시는 신문광고에 실린 선전문을 보고 '우리 회사도 SIS하나 사 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호통치는 경영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